



제주지역의 크루즈관광 활성화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승훈

I. 서론

세계 각국은 매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크루즈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속에서도 크루즈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크루즈 시장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연중 열대성 기후, 다양한 자연경관,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씨, 다양한 문화적 매력, 저가(低價) 크루즈 시장의 성장 등을 통해 아시아는 크루즈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일류급의 크루즈 선사들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아시아여행 크루즈 편을 점점 더 많이 개설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은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 크루즈 관광시장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력과 관광성향에 비추어 잠재된 크루즈 관광수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크루즈 산업은 미성숙 단계에 있으나 성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서구에서는 이미 대중화된 크루즈산업에 대한 관심이 최근 고조되고 있다.

또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크루즈 관광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크루즈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도 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우리나라 크루즈 시장 규모를 2011년 총 16만명에서 2020년에는 총 28만명으로, 연평균 약 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항만당국 및 지자체에서는 크루즈선 기항 유치를 위해 포트세일즈를 전개하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세워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크루즈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섬지역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되며,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중·일 3국을 연계하는 크루즈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최적지이다. 현재 기항지로서는 매력적인 곳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 수는 최근 2~3년에 걸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에는 5만여명 이상의 크루즈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크루즈 관광산업의 현황과 시사점을 고찰하여, 제주지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제주지역의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국내·외 크루즈관광 현황

국토해양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2~2021) 수립시('09.3~'10.10) 항만별 크루즈 부두개발 계획을 검토·수립할 예정이다.

1. 국내 크루즈관광 현황

1) 크루즈항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크루즈 전용 부두를 확보하고 있는 항으로는 부산항과 여수항이 있으며, 제주항은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부산, 제주, 인천 중심의 방한 크루즈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크루즈 입항 항구로는 평택, 울산, 동해, 속초, 목포항 등이며 2012년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여수항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 크루즈 관광객 현황
 우리나라의 크루즈 관광 입항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아시아권 경쟁국가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크루즈는 부정기적으로 입항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기항 및 모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외국 크루즈선의 입항은 부산·제주를 중심으로 2008년에는 총 37편이 입항하여 52,064명이 입국하

〈표 1〉 지자체별 크루즈관광 육성 현황 및 정책

구분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수상관광 거점도시로 발돋움시킬 '서해비단벚길'의 청사진 발표 · 국제 크루즈 및 국내 크루즈를 신규 건조해 2012년부터 운항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루즈산업 및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크루즈 명예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추진 · 2009.5 : 제26차 IAPH(국제항만협회) 총회기간 동안 유럽 최대 크루즈선사인 코스타를 방문, 크루즈선 부산항 정기기항 건의 · 2009.6. :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로열캐러비안(RCCL), 레전드 세븐씨즈(Regent seven seas), 실버씨(Silversea), MSC 크루즈 등 주요 크루즈 선사의 본사 방문 · 2009.11 : 일본 토호쿠지역에서 부산항 마케팅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3 : 세계 크루즈 컨벤션 행사인 '2009 Seatrade Cruise Convention' 참가 · 2009년 13척의 크루즈선이 입항 예정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무역항을 기항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마케팅 강화 · 2009.9: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크루즈 관광심포지엄에 참가 · 2009.10: 일본 크루즈관광 상품 기획자 초청 팸투어 실시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9: 일본 돗토리현에서 'DBS크루즈페리' 항로와 관광자원 홍보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항내 크루즈 여객터미널도 여수엑스포 개최전인 2011년까지 건설 · 씨번 크루즈 라인이 2010년 3월부터 목포와 여수를 정규 기항지로 크루즈 상품을 운영

였으며, 2009년에는 총97편이 입항하여 77,000명이 입국하였다.

3) 지자체 크루즈관광 육성 현황

서울특별시 서울을 중국 상해와 홍콩 마카오, 일본 등을 국제적으로 연결, 동북아 수상관광 거점 도시로 발돋움시킬 '서해비단벨트'의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2011년 경인아라뱃길 개통과 동시에 한강유람선, 투어선 등 기본 선박들의 서해운항을 추진하며, 이어 국제 크루즈 및 국내 크루즈를 신규 건조해 2012년부터 운항할 계획이다. 국내 크루즈 노선의 경우 1박 2일, 2박 3일 일정에 제주도를 기항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세계 주요 크루즈선사인 RCI와 코스타 등이 2010년부터 부산항을 승객이 타고 내리는 모항(母港)으로 이용할 계획이어서 2010년에는 80여척의 크루즈선이 13만여명의 크루즈 관광객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주요 무역항인 동해항, 속초항에서 2개의 국제항로를 2009년에 개설하였으며, 세미 크루즈선 성격의 여객화물선이 취항하였다. 기존의 속초~러시아 자루비노 경유 백두산(2000년) 항로와 부산~러시아 보스토니치(2008년) 항로 외에 한·일·러를 연계하는 3국간 항로를 2편 개설하였다.

2. 국외 크루즈관광 현황

1) 세계 크루즈 관광 전망

OSC(Ocean Shipping Consultants)에 따르면 근거리 크루즈의 유행, 중국 관광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향후 아시아 시장의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OSC에 따르면 동북아시아 크루즈 관광객은 '05년 44만명에서 '10년 72만명, '15년 100만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동북아시아 크루즈 시장

중국 상해가 크루즈 산업이 발전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항구도시로 개발되고 있다. 이는 상해의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중국 정부의 '상해 국제항운중심 건설 계획' 등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진항만그룹은 해양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10억달러를 투자해 동북아 최대 규모의 크루즈 터미널 건설계획을 수립중이다. 홍콩도 '카이탁국제공항'이 위치하던 지역에 크루즈터미널(2개 선석)을 추가 개발중에 있다. 그밖에 사면, 심천항 등에서도 대형 크루즈터미널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 타 국가보다 오랜 크루즈 역사를 지녔음에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더딘 성장을 하고 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활성화의 징후가 뚜렷하다. 일본에는 외항 크루즈와 내항 크루즈가 공존하고 있다. OSC(Ocean Shipping Consultants)에 따르면 일본의 크루즈 시장은 2010년 27만명, 2020년 36만명, 2028년에 약 43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 시사점

첫째, 우리나라가 관광을 위한 기항지가 아니라 관광객을 모객할 수 있는 '소스 마켓(Source Market)'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0년에는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RCI)과 코스타 크루즈가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상품을 개발하였다. 또한 수도권 배후시장에 인접해 있는 인천항은 크루즈 전용부두와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외국 주요 선사의 모항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전례를 볼 때,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부산항이 모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중·일 동북아를 연계하는 크루즈 노선 구성이 제주도를 기항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크루즈 선사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 크루즈시장의 성장. 한·중·일을 연계하는 동북아 크루즈 시장이 아시아 크루즈시장에서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중국의 연안도시들(상해, 천진 등)을 중심으로 크루즈항만 개발 붐이 일고 있으며, 일본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루즈관광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Ⅲ. 제주지역의 크루즈관광 현황

1. 크루즈항 개발

제주에 입항하는 국제크루즈선들은 주로 국제여객터미널이 위치한 제주항 제7부두나 화순항 등에 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크루즈선을 위한 전용부두 및 관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크루즈 관련시설의 조기개발이 필요하다.

제주항을 국제 관광항만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대형 크루즈 부두(8만톤급 1선석)를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크루즈 부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부두건설과 연계하여 크루즈 전용터미널 건립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서귀포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는 2014년까지 최대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갖출 예정이다.

2. 크루즈 관광객 수 추이

최근 3개년간 크루즈선박 및 관광객 입항현황을 보면 '07년 24회/17,285명, '08년 39회/30,523명, '09년 37회/38,147명에 이어 2010년도에는 53회 방문계획으로 전년도 보다 16회(4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객 또한 50,000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의 주요 운항루트는 대부분 일본~제주~

일본, 중국~제주~일본 등을 기항하는 운항루트가 대부분이다. 북미지역의 카리브해나 북유럽지역의 크루즈선이 입항한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제주방문시 관광코스

2010년 코스타 크루즈 선사는 한·중·일을 연계하고 제주도를 기항지로 하는 동북아 크루즈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코스타 크루즈선이 제주방문시 기항하는 시간은 4시간~8시간 정도이며, 1박 이상하는 경우는 없다.

여행코스는 중문관광단지 투어(3개 코스), 제주시 투어(2개 코스), 동부지역 투어(2개 코스), 공연코스 2개 코스(매직월드쇼와 난타공연), 서부지역 코스로는 한림공원방문 코스와 제주조각공원·오설록방문 코스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코스가 관광지 방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제주도의 자연, 문화, 역사를 관광객들이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세계자연유산 코스, 도내 축제와 연계된 코스, 문화유적지와 연계된 코스, 올레길·샤러니 숲길을 활용한 걷기 코스 등 다양한 여행코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체재시간 말미에는 자유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쇼핑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기존 여행코스과 연계된 쇼핑코스를 고려해야 한다.

Ⅳ. 제주지역의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

1. 조직 구성 및 제도개선 측면

첫째, 크루즈관광 육성을 위한 TF팀과 협의회 구성. 관광과 항만여건을 모두 감안하여 크루즈를 유치할 종합 TF팀(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제

주관광협회 등) 구성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해양경찰서, 관광사업체, 기타 크루즈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제주크루즈관광산업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화순항 기항 크루즈선에 대한 편의제공. 화순항은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2010년에도 로얄 캐리비언 인터내셔널(RCI) 크루즈선이 화순항에 기항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이 협력하여 적극적인 편의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크루즈관광 사업자 및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국제크루즈선에 우선하여 입항순위 결정 및 선석 배정, 정기적인 기항에 대한 항세 감면, 크루즈 관련 관광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및 기항 급유시 유류세에 대한 혜택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크루즈선사로 하여금 제주에 대한 사업적 매력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2. 크루즈 관련 인력 양성체제 구축

첫째, 도내 크루즈 전문여행사와 전문인력 육성. 도외지역의 크루즈 전문여행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외국 크루즈선사의 한국총판, 판매대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루즈 전문여행사의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둘째, 크루즈 승무원 양성. '랩소디호' 등 호화크루즈 운항 선사인 로열 캐리비언 인터내셔널(RCI)사가 RCI사의 국내 채용대행사인 (주)호스코(www.hosko.co.kr)를 통해 2008년 9월부터 1년간 총 971명의 한국인들을 RCI 크루즈 승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한 사례가 있다. 향후 국제 크루즈선사와 국내 연안 크루즈선사의 승무원 인력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도내 대학에 크루즈학과 신설이나 크루즈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3. 기반시설 구축 측면

첫째, 크루즈 전용부두 개발. 제주항에 8만톤급 1선석을 오는 2011년까지 완공하고, 서귀포시 민군복합 관광미항에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크루즈 관광수요는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크루즈 관광수요가 단기간에 크게 성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제·연안 크루즈선 입항시 제주항과 서귀포 민군복합 관광미항이 국제 크루즈 루트와 연안 크루즈 루트 상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에 대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크루즈터미널 개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외항 크루즈터미널 개발타당성 조사 연구(2009)」에 의하면 제주항 크루즈 터미널의 개발방식으로 정부재정 및 민간자본투자를 혼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제주항 크루즈터미널은 크루즈전용부두 개발과 동시에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제1단계 터미널 시설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현안 과제이다.

4. 관광상품개발 측면

첫째, 기항시 다양한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연계 관광코스를 테마별, 일정별, 지역별로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주지역에서의 체류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세계자연유산, 제주전통굿공연, 재래시장 투어 등 자연과 제주문화컨텐츠와 연계한 관광상품과 건강검진, 스파, 수(水) 치료, 산림욕 등과 연계한 헬스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관광객인 크루즈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쇼핑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축제와 연계한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제주도내 지역축제 개최일자에 맞춰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단시간내에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크루즈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셋째, 중국 인센티브 크루즈 관광객 유치. 동북아 주요 크루즈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인센티브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크루즈 인센티브 여행을 시행하는 중국소재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팸투어 시행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 관계자들에게 E-mail를 활용한 지속적인 제주관광정보 제공, 제주도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5. 마케팅측면

첫째, 한·중·일 주요 도시와의 공동 협력 마케팅 실현. 국제 크루즈선은 제주도를 단일목적지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크루즈관련 조직 등이 참여하는 '크루즈관광진흥협의회'를 조직하고, 공동 마케팅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 한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의 크루즈 도시들간 협력체인 '동북아 크루즈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타 지자체와 함께 모색해 나가야한다.

둘째, 크루즈선사 코디네이터에 대한 팸투어 및 홍보 강화. 크루즈 선사의 선박 운항 스케줄과 신규 선박 인도 스케줄을 확인하고 마케팅 대상 선사를 결정하여 집중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하다. 제주도를 기항하고 있거나 기항할 예정인 크루즈 선사들(코스타, RCI, 일본 크루즈선사, 실버시 크루즈, 아자마라 클럽 크루즈, 씨번 크루즈, 홀랜드 아메리카 크루즈 라인)을 1차 표적시장으로 선정하고, 그 외 아시아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크루즈 선사들(프린세스 크루즈, P&O Cruise, 오세아니아 크루즈, 스타 크루즈, 레전트 세븐시 크루즈)을 2차 표적시장

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기항지 역할에서 준모항 등의 역할로 확대. 기항지가 아니라 준모항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을 모객할 수 있는 '소스 마켓(source Market)'이 있어야 하나, 제주도의 현 여건은 배후 시장이 미약하고, 국제항공노선도 한정되어 있어 당장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주도가 아시아 크루즈 관광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타 지역의 내국인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크루즈를 타기 위해 항공기를 타고 제주도를 찾아오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외국 주요도시와의 직항노선 확충(특히 크루즈 모항인 동남아의 싱가포르, 홍콩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YouTube에 제주 크루즈 관광 동영상 채널 개설, 크루즈 전문잡지 홍보, 박람회 참가, 가이드북 제작. 중국 크루즈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대표 동영상매체인 Youku, Tudou, 56.com에도 제주 크루즈관광 동영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크루즈 전문 잡지와 여행전문 잡지(Travel & Leisure Magazine, Onboard Service 등)에 제주도 크루즈 관련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Seatrade Cruise Shipping Convention(미국), All Asia Cruise(상하이) 등 세계적인 크루즈 박람회 참가와 크루즈 컨벤션 참가를 위해 크루즈 관광객의 성향에 맞는 제주관광 가이드북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를 기항지로 하는 외국 크루즈 선사 홈페이지에는 제주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세계자연유산지역 등 제주관광의 최신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선사별 홈페이지 영문표기도 'Cheju(코스타 크루즈선사 등)라고 표기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V. 결론

크루즈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종합 레저산업으로 세계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도 시장형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부유층들의 초호화 유람선 관광이 늘면서 세계적인 크루즈 여행사들이 중국 부유층을 겨냥한 다양한 크루즈 상품을 개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를 동북아 크루즈시장의 대표 기항지로 자리매김시켜 고부가 해양관광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해양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을 수립하였다.

특히 부산은 남해안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이점과 국제크루즈 전용 터미널 시설을 갖춘 수용태세의 정비 등으로 국제 크루즈 선사의 모항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크루즈 관광산업은 현재보다 미래가 더 유망한 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제주도에 입항하는 크루즈선과 관광객 수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다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야할 산업이다.

참고문헌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해양한국, 2009.7.

산은경제연구소, 크루즈선 시장의 동향과 국내 조선업계의 대응전략, 2007.12.

박기홍, “한·중·일 크루즈관광의 잠재력과 성공조건,” 제1회 동북아시아지역의 관광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한·중·일 관광포럼, 문화관광부, 2006.12.

김범중·김군태, “동북아 크루즈산업의 발전방안,” 해양수산, 통권 제194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11.

황진희, “우리나라 해양 크루즈 산업 육성방안 연구,” 해양수산, 통권 제29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12.

한국관광공사, 동북아 4개국 연계 크루즈관광상품 개발, 1999.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최종심사자료, 2009.

하인수·이애주, “국내 크루즈 항만인프라 개발방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11권 제2호 (통권 제18호), 2002.

문화체육관광부, 200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9.8.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 2009년 11월 12일자.

한국은행 강원본부, 환동해권 경제협력 현황과 발전전략, 2009.

문화관광부·해양수산부, 해양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2007.4

이건철, 전남 남해연안 크루즈 개설방안, 리전인포 제185호, 전남발전연구원, 2009.10.22.

황진희, 일본 크루즈 정책과 시장환경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항 크루즈터미널 개발타당성 조사연구, 2009.

부산일보, 2008년 6월 4일자.